

한국 교회는 북한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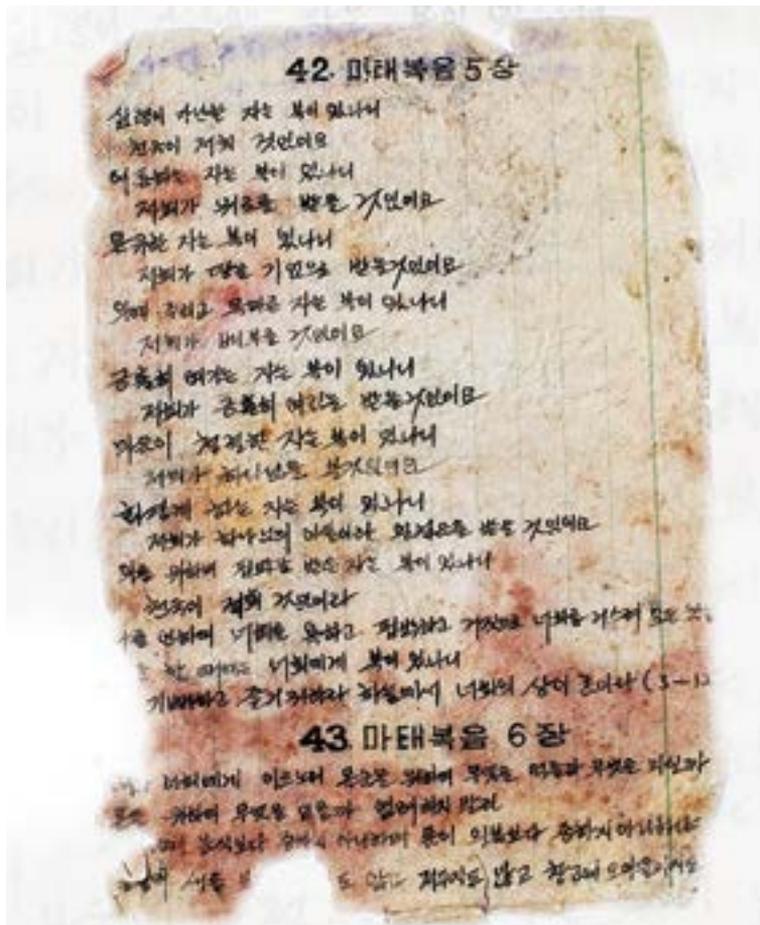


손봉호 (대표주간)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기아대책기구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 선교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교인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 북한 선교단체들이 여러 개 조직되었으며 선교전략을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가 빈번하게 열렸고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이뤄져 책으로, 논문으로 출판되었다. 북한 선교에 대한 열망과 열정, 전략 연구에 관한 한 한국 교회는 나무랄 데가 없다. 북한이 개방되는 순간 아마 수백,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북으로, 북으로 몰릴 듯이 몰려가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실제로 남한 교회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 할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거의 고려도, 고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선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된 것이 없고 확인될 상황도 아니므로 그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논의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는 과거 남한에서보다 더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었고 아직도 지하에 숨어서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소식도 간간히 들려오며, 심지어는 보여주기를 위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의 봉수교회에서도 참 신도가 생겨났다는 소문이 있다. 따라서 지하교회가 있을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 만약 존재한다면 그들의 신앙이야말로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므로 매우 순수하고 진실할 것이다. 북한 선교를 논의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요소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북한인은 우리 동족이며 우리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반세기 동안 전혀 다른 정치체제와 이념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질적이 된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도 수천 년 동안 함께 형성된 문화가 그렇게 근본적



출처 <https://cafe.naver.com/jedidiahsocker>

으로 달라질 수는 없다. 같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뿐 아니라 “나의 살던 고향은...”을 같이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정서적으로는 아직도 같은 민족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은 북한이 개방되자마자 남한 선교사가 당장 북으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선 문화적 공통성 때문에 남한 교회의 모든 장단점이 거의 그대로 북한에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피선교지 교회에 형성되는 신앙의 질과 교계문화는 선교지 교회의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다. 미국 장로교가 금연 금

주를 강조했기 때문에 한국 장로교에도 그런 전통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 교회는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남한 교회의 문화를 답습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북한에서 독특한 교회 문화가 형성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속도와 정도는 더더욱 클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남한 교회의 심각한 약점들도 북한에 그대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 과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도 될 것인가? 우상이 되어버린 개 교회 성장 제일주의, 대 교회들의 목회 세습, 논문이나 설교 등의 표절, 교회 공금 횡령, 교단 장이나 교계 단체장 선거부정 등 개

신교 역사상 가장 부패한 남한의 부끄러운 교회 문화가 북한의 신앙 청정지역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이런 재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여러 대형교회에서는 커다란 북한 지도를 벽에 붙여놓고 큰 도시마다 자기 교회 이름을 딴 평양 00교회, 신의주 00교회라고 표시해 두고 있다. 남한 교회의 가장 심각한 고질인 교단 간, 교회 간 성장 경쟁을 북한에 가서도 그대로 펼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승부를 결정하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이나 신학의 정통성이 아니라 돈이 될 것이 뻔하다. 결과적으로 온갖 핍박을 다 견디며 지켜왔던 지하교회의 순수한 신앙이 돈, 권력, 명예 같은 세속적 가치로 오염될 것이며 북한 교회도 남한 교회와 비슷하게 사회를 성숙하게 하고 정의롭게 만드는데 아무 공헌도 하지 못한 채 주변으로 밀려나갈 것이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남한 교회는 북한 선교에서 주역이 되겠다는 꿈을 접어야 한다.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남한 교회가 근본적으로 개혁될 때까지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선교의 주체는 남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한국 교회는 후방에서 재정적으로 돕는 역할만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북한 선교의 가장 바람직한 주역은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지하교회다. 남한의 기독교인들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이 순수하고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세우고 운영하는 교회와 교회 문화는 지나치게 세속화되고 부패한 남한 교회를 개혁하

는데도 크게 공헌을 할 수 있다. 사실 남한 교회가 북한을 선교하기보다는 오히려 잘 정화된 북한 교회가 남한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성공할 가능성도 더 크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지하교회 성도들의 수가 너무 적어 힘이 부족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남한 교회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나 중국인 가정교회가 보조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남한 교인들보다는 훨씬 더 순수하고 신실하기 때문이고 사회주의와 독재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아직도 한국의 주류 기독교인들처럼 일만 악의 뿌리인 돈 사랑에 젖어 있지는 않다. 한국 교회가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하더라도 결코 돈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돈으로 선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 역사상 어느 교회도 돈을 퍼부어서 선교에 성공한 예는 없다. 북한 선교에는 오히려 한국의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게 한 니비우스 선교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인 몇 사람만 생겨나도 그들로 하여금 예배당 건립을 포함한 교회의 거의 모든 사역을 스스로 감당하게 하므로 책임의식과 자립정신을 키운 것이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는 속담이 있다. 의사가 병에 걸리면 환자를 고치기보다 오히려 병들게 할 수 있다. 북한을 선교하기 전에 선교할 우리 자신의 건강을 먼저 점검해 보고 우리 병부터 고치는 것이 그나마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닌가 한다. 